

들어가면서

- 성서 기록이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신학적 판단을 기준으로
 - 이스라엘왕에 대해: “유다왕 xx 제 몇 년에 xx 아들 xx 가 사마리아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몇 년을 다스렸다. 그는 야훼의 눈에 악한 짓을 했다.”
 - 유다왕에 대해: 이 문구에 왕이 즉위할 때의 나이와 어머니의 이름을 보탠다.
 - 신학적 판단: “여로보암의 죄”=> What did he do wrong?
 - ⇒ 벤엘과 단에 성전을 세움. (왜?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업체!)
 - ⇒ 왕상 13:2, “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”=> 300 년 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어찌 알까? (상식적 이해: 요시야 당시 집필)
- 연대 기록 조정
 - 앗시리아, 바벨로니아 문서와 대조. "Absolute chronology can be achieved through correlation of biblical dates with extrabiblical ones that are fixed astronomically. Most reliable are the Assyro-Babylonian dates, preserved in eponym ... and king lists, and chronicles" (M.D. Cogan, ABD 1:1007).
 - 연대기 조절 (Synchronistic Dating 참조)
 - ⇒ 히스기야 원년= 이스라엘 왕 호세아 3 년 (왕하 18:1)
 - ⇒ 히스기야 4 년 = 호세아 7 년=> 앗시리아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침공 (왕하 18:9)
 - ⇒ 히스기야 6 년 =호세아 9 년 => 사마리아성 함락 (왕하 18:10) => **722 BCE**
 - ⇒ 히스기야 14 년= 산헤립의 침공 (왕하 18:13) => **701 BCE**
 - ⇒ 어디보자~~ Q. 6 년-14 년, 722-701 년, 차이가 좀 나네?
 - 1) 701 BCE 를 기준하면, 히스기야 통치기간이 715-687 BCE (B. Anderson; NRSV)
 - 2) 722 BCE 를 기준하면, 히스기야 통치기간이 727-698 (왕하 18:2, 29 년간 통치)
 - 3) 근데 히스기야가 25 살에 왕이 되고, 그 아비 아하스는 36 살 은퇴(왕하 16:2; 18:2). 가만? 11 살에 아비가 됐다? 또 아하스는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데 (왕하 16:3). 첫째였다면, 도대체 몇 살에 애를 낳는지...
- 다윗의 이야기처럼 솔로몬 이야기도 정치/종교적 propaganda 를 벗기고 읽으면, 전혀 다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.

A. 전통적 이해: 성전 건축, 지혜문서 집필,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

B. 새로 읽기: 분열 왕국의 주범

- 교활한 인물—왕위 찬탈(열왕기상 1-2 장)
- 폭군
 - 강제노동을 시킴(왕상 9:15-22)
 - ⇒ 왕상 9:22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지 않았다
 - ⇒ 왕상 5:13 온 이스라엘 삼만명을 차출하여 노역(כֶּסֶל)을 시킴 (MT. 5:27)
 - 건축사업에서 북이스라엘 부족에게 불평등 대우 (4:7-19)
 - 왕성한 소비벽(왕상 4:22)
 - 성전세 콘트롤--언약궤 확보(imprisoned)
 - ⇒ 예레미야의 성전설교—“도적의 소굴”(렘 7:11)
 - ⇒ 예수의 성전에서 난동(cleansing?)은 이런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보여줌.
- 재정적 파탄
 - 크레딧 카드가 바닥. 왕상 9:10-14. 솔로몬은 갈릴리 도시 20 개를 히람에게 넘김. (엄청난 재력으로 칭송받는 왕이 건축 자재비를 내지 못한다?)
 -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“요셉의 집”(왕상 11:28)을 감시케 함.=>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(12:4)는 그들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지 않았음을 암시
- 정략결혼과 이방신 숭배(왕상 **3:1**; 7:8; 9:15, 24; **11:1**)
 - 신명기 사가의 평가
 - ⇒ 솔로몬이 주를 사랑했다(3:3).
 - ⇒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(11:1).

- 많은 아내와 적은 정력의 상징이 아니라, 배교의 씨앗
 - ⇒ 훗날 예언서에는 바알숭배가 만연했음을 고발=> 왕상 18:21 (“언제까지 두 개의 다른 견해 사이를 왔다갔다 하려느냐?)
 - ⇒ “여로보암의 죄”는 (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) 도덕적/윤리적 결함이 아님. 이미 신학적 잣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걸려듬.

C. 신명기 사가의 왕권에 대한 이해(신 17:14-20)와 솔로몬 이야기 비교

신명기 17:14-20	솔로몬의 행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¹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¹⁵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윗이 노년에 나단과 밧세바의 요구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 • 사울(삼상 10:1)과 다윗(삼하 2:5; 5:1-4)의 경우 비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¹⁶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왕상 10:26; 28-29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왕상 10:28-29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¹⁷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왕상 11:1-8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왕상 10:14, 21, 27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¹⁸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¹⁹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²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솔로몬이 율법서를 두고 읽었다는 기록이 없다. 오히려 솔로몬은 레위 제사장들을 파면시킴(왕상 2:26-27).

결론/평가

- ✚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야기 역시 신학적 판단에 따라 집필.
- ✚ 후에 요시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잘못을 고친다 (열왕기하 22-23 장). 그렇다면, 신명기 사가의 이상적인 왕은 요시야다. (이스라엘, 유다 왕들 성적표 엿보기)

생각해 보기

1. 성전 건축--물론 다른 건축사업도 있지만--에 따른 솔로몬 당시 국가적 낭비, 국민의 피해.
2.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. 솔로몬의 강제노역과 위험을 피해. 애굽으로부터, 강제노역으로부터 백성을 구출한 또 하나의 인물은?